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4-7)

〈착한 목자〉, 윌리엄 다이스 작

[제1독서] 탈출기 32,7-11.13-14

[제2독서] 티모테오 1서 1,12-17

[화답송] 시편 51(50),3-4.12-13.17과 19
(© 루카 15,18 참조)

[복음 환호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음] 루카 15,1-32 <또는 15,1-10>

[성가 안내]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 입당성가: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홉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52] 오 지극한 신비여
- 파견성가: [286] 순교자의 믿음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 ¹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²그러자 바리새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⁴“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⁵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⁶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⁷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⁸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⁹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¹⁰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drawing near to listen to Jesus, but the Pharisees and scribes began to complain, saying,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So to them he addressed this parable.

“What man among you having a hundred sheep and losing one of them would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desert and go after the lost one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does find it, he sets it on his shoulders with great joy

and, upon his arrival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neighbors and says to them, ‘Rejoice with me because I have found my lost sheep.’

I tell you, in just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ople who have no need of repentance.

“Or what woman having ten coins and losing one would not light a lamp and sweep the house, searching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And when she does find it, she calls together her friends and neighbors and says to them, ‘Rejoice with me because I have found the coin that I lost.’

In just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will be rejoicing among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묵상

우리는 고집스럽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길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재앙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로 죄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 많은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와서 자비로운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거지나 다름없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멀리서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은총을 주십니다. 은총의 잔치가 벌어져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자만하여 죄인의 회개를 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한국에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큰 광고 종이를 보게 됩니다. 이 광고 종이들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바닥에 붙인 광고들입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 다니기에 벽에 붙이는 광고보다 바닥에 붙이는 광고들이 더 효율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끝까지 2G폰을 쓰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작년 이맘때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직 많은 앱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카톡이나 간단한 앱들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에는 너무나도 많은 APP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앱들 가운데에서 2011년 가톨릭 신자들에게 획기적인 앱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Confession : A Roman Catholic App, 말 그대로 고해성사를 위한 앱입니다. 내 인적 사항과 죄를 입력하면 성경이나 가톨릭 성인들의 말씀을 팝업창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APP이 있다면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냉담자들이나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고해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됐든 나의 치부를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이 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CBCCK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에 대해 고해 사제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한 개별 고백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고해성사는 전화나 이메일,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고해성사 역시 결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이용한 죄 고백은 기존의 고해성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앱은 이 앱을 통해 고해성사를 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더욱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고해성사 예식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고해성사를 형식적이고 부담스러운 죄 고백이 아닌 진지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고자 제작한 ‘고해성사 도우미 앱’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해성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고해성사는 우리를 하느님과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는 치유의 성사이며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시대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소개해 드릴 책인데요, ‘스콧 한’이 쓴 “치유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이 책에는 고해성사의 역사와 죄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고해성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효율적인 고해자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어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평소에 하는 고해성사를 더 풍성한 은총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고해성사는 참회를 위한 모든 희생 행위의 정점이며



치유하는 고해성사

Lord, Have Mercy :
The Healing Power
of Confession

스콧 한 지음/ 강우식 옮김
바오로딸 출판

수백, 수천 배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고해성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초자연적 삶을 위한 계약의 유대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해성사를 자주 - 매 주나 매달 - 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보라고 가르치지만 오히려 자주 보는 것이 익숙해지는 만큼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해 사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히나 우리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고해성사를 볼 사제들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알고 있는 고해 사제를 정하고 고해를 하게 되면 나의 생활은 어떻게,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하고, 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양심 성찰**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비타민 섭취나 운동 계획 또는 식이요법이나 장부정리처럼 매일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양심 성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 성찰을 하면서 나의 관심, 갈등, 죄 등에 대해 간략한 메모를 남기면 고해성사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해소**로 가라고 합니다.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효과적인 습관이 바로 고해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성 호세 마리아 에스κρι바’의 고해자가 지켜야 하는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빠짐없이 고하라, 진심으로 통회하라, 분명하게 표현하라, 간략하게 고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고해성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고해성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부담이 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순시기에 판공성사를 보고 이후로 한 번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나를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고해성사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런 우리들의 습관은 분명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가두선교 실시

순교자 성월인 9월의 첫 가두선교가 지난 4일(일) 오후 센터빌 소재 H-마트와 롯데 프라자에서 있었다. 천주의 성모 브레시디움 (단장 심영보 마티아) 단원 4명은 H-마트에서, 영광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정우석 빌립보) 단원 2명은 롯데 프라자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쇼핑객들에게 가톨릭을 알리는 유인물을 돌리며 열심히 가두선교를 실시했다.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가두선교를 실시해 오고 있다.

9월 구역 임원 교육 실시



9월 구역 임원 교육이 지난 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구역부장 서경원 (마르티노)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말씀 나누기 자료 검토에 이어 본당 창설 30주년 기념 행사(17일 -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뛰기 대회, 24일 - 음악의 밤, 25일 -대천교 및 성경퀴즈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예비자 및 전입교우 소공동체 모임 참석 권유와 처음 참석하는 교우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자는 내용 등에 대해 구역 임원들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로고스 청년회

여름 캠프 다녀왔어요



본당의 로고스 청년회가 버지니아 비치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다. 20여명의 회원들은 노동절 연휴를 맞아 자연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회 김병국 다윗 회장은 “첫날은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너무 심해 걱정했지만, 다행히 하늘의 은총 안에서 둘째날부터 하늘이 개면서 멋진 바다 풍경을 즐기며 좋은 나눔을 가졌다”고 전했다.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 신부는 본당의 바쁜 일정으로 이번 캠프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캠프를 떠나는 청년들을 격려하며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다.



Mother Teresa becomes a saint as Pope Francis performs canonization ceremony



Pope Francis officially declared Mother Teresa a saint before a crowded St. Peter's Square Sunday morning, 19 years after her death.

Applause broke out from the tens of thousands in attendance even before Pope Francis finished the canonization at the start of Mass.

Globally revered by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for her lifetime of service to the world's most destitute and sick, Mother Teresa most notably worked in the slums of Calcutta, India, and a number of other countries. Pope Francis described her as an "eloquent witness to God's closeness to the poorest of the poor."

His formal declaration marks a highlight for Pope Francis' Jubilee Year of Mercy, in which he recognizes the nun as an icon of mercy.

NPR News

St. Paul Chung Youth Choir



We are welcoming any strings and especially many singers for upcoming audition.



- **When** : Sept 25th (1pm, Sunday)
- **Where** : Hasang Building B #7
- **Who** : 7th to 12th Grade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and Singer

- ★ 1 selected piece, 1 self selected piece, sight reading and Scale (up to 3 flats/3 sharps)
- ★ Application and the Selected piece will be available at the church's weekly magazine stan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tephania Cha](mailto:Stephania.Cha@stpaulchung.org) (703-725-3167)

St Paul Chung's youth Choir depends on the dedication and energy of young musicians and singers.

Please come and join us!

ANNOUNCEMENTS

- 1 First day of Sunday School (Ceremony & Parents Orientation)**
 - When : September 11th (Sunday, 10 am)
 - Where : Gym (Hasang Building)
- 2 First day of Confirmation Class (2nd Semester)**
 - When : September 14th (Wed, 7:45 pm)
- 3 Confirmation Class Parents Meeting**
 - When : September 14th (Wed, 8 pm)

..... Mother Teresa's Daily Prayer



Dear Jesus,

Help me to spread Thy fragrance everywhere I go.
Flood my soul with Thy spirit and love.

Penetrate and possess my whole being so utterly
that all my life may only be a radiance of Thine.

Shine through me and be so in me that every soul
I come in contact with may feel Thy presence in
my soul. Let them look up and see no longer me
but only Jesus.

Stay with me and then I shall begin to shine as
you shine, so to shine as to be a light to others.

Amen.

공동체 창설 30주년  본당 승격 20주년

“성숙한 신앙인, 이웃과 함께, 하나된 공동체”



Sat
9/17

불우이웃돕기 5k걷기/뛰기 대회
(복지부 주최)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뛰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9월 17일(토) 오전 7:30 - 오전 10시
- 신청: 9월 11일까지, 8시, 10시, 11:40 미사 후 (친교실)
- 신청비: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 \$40 (아울러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문의: 김재호 라우렌시오 (571)345-5442

Sat
9/24

음악의 밤

- 일시: 9월 24일(토) 본당 오후 8시 - 9:45
- 공연 참가자: 연합성인성가대, 마니안젤리 핸드벨 연주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쉐마 청년 성가대

Sun
9/25

성경 퀴즈 대회

- 일시: 9월 25일(일) 오후 2시 - 5시 (친교실)
- 대상: 전 교우
- 접수 기간: 9월 25일까지 8시, 10시, 11:40, 오후 5시 미사 후(사무실)
- 문의: 서경원 마르티노 (571) 236-7071

※ 성경필사노트 전시회가 성경퀴즈대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노트 전시를 원하는 분들은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Sun
9/25

대친교

- 일시: 9월 25일(일) 오전 8시, 10시, 11:40 미사 후(친교실)
- 대상: 전 교우
- 메뉴: 잔치국수, 떡, 과일

교우 글

유호일 안토니오 형제를 그리며

허성호 토마스(‘루르드의 성모’ 브레시디움 단장)

15년 넘게 함께한 시간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 회합을 준비해 주시던 유호일 안토니오 형제님께서 인사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빈 자리가 아직 멍기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왔던 삶이었으나 성모님과 함께 하는 주일엔 한없이 행복해 하던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떠난 빈 자리를 보는 단원들은 생전 모습이 선한 자리에서 지난 주 회합에 ‘루르드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리라 믿으며 다시 함께 만날 날을 그리며 저희들은 남은 몫을 다하렵니다.



1 제8대 주임 백인현(안드레아) 신부 부임 미사

- 부임 미사 : 9월 11일(일) 오전 10시 미사
- 제8대 주임신부로서는 백인현 신부님을 환영하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2 단체장 회의

- 일시: 9월 11일(일) 오전 11:30분 (B-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1시 (B-3,4)

4 복사단 모임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12:40 (B-1,2)

5 교육 세미나

- 일시 : 9월 11일(일) 오전 11:30 - 오후 1시
- 주제 : 주의력 결핍 증상(ADHD) 극복 방안과 부모의 역할
- 강사 : 황용주 베드로(LPC, PBSF)

6 한가위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5일(목) 오후 8시
- 조상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주일학교 PTO 전체회의

- 2016년 - 2017년도 주일학교 학부모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9월 18일(11:40 - 12:30) 하상관 지하실 # 4
- 문의 : 임은경 마리아 (703)870-1908

8 전례부 미사해설자 및 독서자 교육

- 일시 : 9월 18일(일) 오후 1:30 성당
-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 각 팀장 선출 및 교육
- 문의 : 박상태 요한 (703)302-0026

9 Quo Vadis (성소자모임)

- 일시 : 9월 18일(일) 오후 1시 (B-3,4)

10 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오디션

- 일시 : 9월 25일(일) 오후 1시, 하상관 지하교실(B-#7)
- 대상 : 7학년 - 12학년(Singer,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 오디션 : 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시창(sight reading), Scale (up to 3flats/3sharps)
- 지정악보와 신청서는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차 스테파니아 (703)725-3167

11 토요일 사무실 봉사자 모집

- 매주 토요일(오전 9시- 오후 5시) 사무실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재필 총무 (703)589-6580

12 청소년 기금 마련 점심 판매(K of C 주최)

- 일시 : 9월 17일(일) 10시 미사후
- 메뉴 : 볶음밥(\$5.00)

13 하상회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 (B-3,4)

14 안나회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 (A-1,2,3,4)

15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40 (하상관 # 4, 5)

16 베드로회

- 일시 : 9월 18일(일) 오후 1시 (A-1,2)

17 바오로회

- 일시 : 9월 18일(일) 오후 4시 (친교실)

2차 헌금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11일(일)	연중 제24주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	단체장 회의(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4), 주일 학교 개학(10:00, 하상관), 복사단 모임(12:40, B-1,2), 교육 세미나(11:30, A-1,2), 프란치스코 월례회(11:30, A-3,4)
12일(월)	연중 제24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13일(화)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 (9:30,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재속 프란치스코(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14일(수)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15일(목)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한가위	아침 미사(6:00, 성당), 추석 합동위령미사(20:00, 성당)
16일(금)	성 고르벨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하상성인학교(9:30, 하상관), 저녁미사(19:30), 사도임원회(20:00)
17일(토)	연중 제24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혼배미사 (16:30, 성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불우이웃돕기 걷기/뛰기(7:30-10:00)
18일(일)	연중 제25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안나회(11:30, A-1,2,3,4), 하상회(11:30, B-3,4), 베드로회(13:00, A-1,2), 퀘바디스 성소자모임(13:00, B-3,4), 주일학교 PTO 전체회의(11:40, 하상관 # 4),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 # 5), 바오로회(16:00)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9월 15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 가톨릭 대학 서울 성모병원 국제진료 센터의 아프리카 어린이 살리기
 - **명불허전** : 평화방송 명강의 앵콜 시라즈 홍성남 마태오 신부 "건강한 신앙인 되기"
 - **인터뷰. 아, 사람** :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래하며 봉사하는 음악 치료사 성악가 김경희 마리아(2)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일반 지향
인간 중심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중심 사회의 건설과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복음 선교
그리스도인들이 성사에 참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복음 선포 사명을 더욱 잘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9월 4일 (연중 제23주일)

주일헌금	\$ 6,309.00
교무금	\$ 6,317.60
교무금(신용카드)	\$ 2,910.00
특별헌금	\$ 500.00
2차 헌금	\$ 3,563.90
합계	\$ 19,600.5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야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슬(루시아), 고미엘(마카엘라), 에스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신재훈(대건안드레아)

※ 기도해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성승현 자 : 성영호 (스테파노)**
◆ **김승근 녀 : 김홍선**

- 일시 : 2016년 9월 17일 (토) 오후 4:30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릴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Kitchen, Deck Sunroom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Golf Lesson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김주현 회계사, 세법학 석사 Julie J. Kim CPA, MST 회계, 세무, 감사 jkim@juliekimcpa.com 703-462-9924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정비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